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공직자 서명 유도

보행자 인도 주차장 조성 주민 원성

무주군, 국가 전산망 통한 비대면 서명운동 동참 요청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광복 행보를 하고 있는 무주군이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무주군 소속 공무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국가 전산망 새을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과 동명이인인 국가·지방직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 서명에 동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다.



무주군이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을 통한 서명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려 주도종인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메일 본문(안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무주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로 시작하며 태권도가 국기이고 올림픽 정식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조차 태권도 기반이 붕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대안이라는 점을 중점 어필하고 있다.

또 "우리는 서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같은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의 위상이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을 돕기 위해 편지 하단에 참여링크도 함께 보낸다.

무주군 공무원 김 모 주무관은 "세계로 뻗어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로써 역할을 하게 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에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국 공무원 대상 서명운동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군은 범국민적 여론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12월 부터는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팝업창을 통한 전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군은 이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가 전산망을 통한 전국 공무원 대상 서명운동 추진으로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 동참을 이끌어 내고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군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브라질 내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가 있듯이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며 "무주군 공직자를 중심으로 국내 전 공직자가 함께 동참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있어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정치권과 정부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들과의 협약 체결, 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읍 향학로 P마트서 인도 주차장 용지로 활용·무주군 단속 외면

무주읍 향학로 P마트에서 인도를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며 보행자 통행을 막고 있어도 무주군 관련부서는 관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상존해도 관련기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P마트는 보행자 인도를 아예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변 인도를 주차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보행자의 통행을 아예 막고 있어도 관련기관의 단속은 뒷전인 채 부서간 관할 책임 떠 넘기는 공직기강의 해이가 극에 달해 심각하다.

관련기관은 통행 민원에도 관할지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책임전가만 일삼아 군 체계가 무너질대로 무너져 엉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선 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민의 군정'을 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군 체계 기강을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구 동성이다.

더욱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조성한 안전인도를 P마트에서 인도 진입을 막는 교통봉을 제거해 무질서한 주차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차량을 피해 차로로 다닐 정도로 교통사고 위험

이 상존해도 관련기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P마트를 찾는 고객차량과 승용차 등 향시 주차로 인도가 막혀 보행자가 다닐 곳이 없어 아예 인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양단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 L모씨는 "P마트에서 인도에 차를 못대게 유도 하고, 주차선을 없애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마트앞 도로 측방선을 살펴보니 인도의 반절 이상이 마트 땅으로 돼 있어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인도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선정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이하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다양한 농업정책 실현 및 사업추진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발굴·시상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성한 공동 수집장을 순회하며 농산물 수집·판매를 대행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252농가에 5억 8천여만 원의 판매 수익을 안겼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 및 농자재, 토양개량제, 친환경유기농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인증 및 검사비용 지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고 영농 재배 실습과 농업 관련 경제·경영 기초교육을 병행하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임시 거주 시설 운영과 청·장년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 농업용 기가지구비 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지원, 그리고 지역민과의 화합을 돕는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선도인상' 선정 소식이 큰 힘이 된다"며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2~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국비 5억원 확보

무주군이 전국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농촌진흥청 '2022~2023년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은 특화작목 및 R&D 연구개발기술,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기술보급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물 육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다. 무주군의 대표 농작물인 곡류(쌀, 보리), 호두, 베리류(여름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등을 활용한 무주 대표 관광 먹거리인 쿠키, 빵 등을 만들 계획이다.

군은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카페나 주유 관광지에서 차나 커피와 함께 곁들일 수 있고, 선물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는 와인동굴, 6개소의 와인업체가 있으나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가 부재한 실정으로 무주 와인과 함께

결들일 수 있는 안주용 제품도 함께 개발할 구상을 갖고 있다.

이밖에 무주 관광 먹거리만의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무주만의 아이덴티티를 홍보하고 쿠키,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사업장 및 체험장 조성, 제품과 연계한 치유·체험 콘텐츠 개발, 판로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가공사업장 및 체험장 참여 농가,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추석선물 인기 '명품장수사과' 본격 출하

추석 선물로 각광 받고 있는 명품과일 '장수사과'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추석사과인 장수 홍로 사과를 지난주부터 수확해 이

번주부터 전국으로 출하한다.

명품 사과로 자리 잡은 장수사과는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역에서 재배돼 충분한 일조량과 일교차로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장수군은 산간고지대(400~700m)에 위치해 있어 일교차가 연평균 11℃ 이상 차이나 착색과 과당형성이 월등하며 고랭지로 과실비대기 온도가 낮아 병충해가 낮은 만큼 농약 살포량도 적어 안전성도 뛰어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코로나19 안심식당 12개소 지정

진안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시설관리가 우수한 음식점 12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이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으로, 지정기준은 ▲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종이수저집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지정 현판을 부착하고, 방역물품 및 위생 수저집 등이 제공된다. 또한, 민간포털 및 지도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지정된 업소는 진안읍 8개소(용마루, bhc 진안점, 무안식당, 서해복합, 이충떡볶이, 흥화네분식, 나드리김밥천국 진안점, 회전국), 마령면 1개소(늘푸른컵터), 부귀면 2개소(금수정, 마이담), 주천면 1개소(어우름 볼집)의 식당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추진

진안군은 관내 생활체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진안군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개보수 공사 추진에 나섰다.

진안군 공설운동장은 지난 2007년 준공되어 축구 동호인 등 진안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관내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구장의 인조잔디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개보수 공사를 추진, 10월 말경부터는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군은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군비 7.5억원)을 들여 축구장과 조명시설, 우레탄 트랙교체, 부대시설 등을 보수해 이용 환경을 개선할 도모했다.

특히 기존 축구장에 깔려있던 인조 잔디를 폐기물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인조 잔디는 폴프로렌장구물량 하단 잡초 구역에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여 호평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